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모의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1~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문학, 사회문화, 한국 지리, 세계사, 국어,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자원(에너지)의 고갈, 국가의 역할, 공동체와 협력, 개혁과 착취, 지속가능한 발전
예상 소요 시간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p style="text-align: center;">①</p> <p>정(政)은 바로잡는다는[正] 뜻이다. 똑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토지의 혜택을 받아 부유한 생활을 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여 가난하게 살 것인가. 이 때문에 토지를 개량하고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 그것을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정이다. 누구는 풍요로운 땅이 많아 남는 곡식을 버릴 정도이고, 누구는 척박한 땅도 없어 모자라는 곡식을 걱정해야 할 것인가. 이 때문에 배와 수레를 만들고 계량 도구의 규격을 세워 한 고장에서 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고 없는 것을 통하게 하는 것으로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정이다. (중략) 누구는 상대를 업신여기고 불량하고 악독하면서도 욕신이 멀쩡하게 지내고, 누구는 온순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착하면서도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이 때문에 형벌로 징계하고 상으로 권장하여 죄와 공을 가리는 것으로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또한 정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②</p> <p style="text-align: center;">모진 소리를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모진 소리를 들으면 / 가슴이 찢어진다. / 온몸이 쿡쿡 아파 온다 누군가의 온몸을 / 가슴속부터 찢 금 가게 했을 / 모진 소리</p> <p style="text-align: center;">나와 헤어져 / 덜컥거리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 내 모진 소리를 자꾸 생각했을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 누군가를 생각하면 모진 소리, / 늑골에 정을 친다 / 찢어엿 세상에 금이 간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③</p> <p>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 이후 향신료, 비단 등 동양 상품의 수요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동서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동양과 직접 교역하려는 욕구가 커졌다. 『동방견문록』 등으로 동양에 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천문학, 지리학, 조선술의 발달과 나침반의 사용 등으로 원양 항해가 가능해지자, 유럽인은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섰다. 지중</p>

해를 통한 향신료 무역에서 소외되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서아프리카 해안을 돌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이라 부른 아프리카 남쪽 끝에 도착하였으며, 바스쿠 다 가마는 이슬람 상인의 도움을 받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함으로써 인도 항로를 개척하였다.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였다. 마젤란 일행은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횡단하고 최초로 세계를 일주하였다. (...)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아메리카 곳곳에 유럽인들이 몰려들었다.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와 피사로는 화포로 무장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각각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다. 이후 그들은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수탈하고 원주민을 동원하여 사탕수수, 담배 등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였다.

④

“형이 고발할 테야? 날아다니는 새 잡아 박제한다구? 그건 죄가 되구, 허가 낸 사냥총으로 새 잡는 치들은 죄가 안 된다 말이지?”

병식이 코웃음 쳤다.

“희귀조가 멸종되고 있다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를 창조할 순 없어.”

“개떡 같은 이론 집어치워. 지구상에는 삼십억 넘는 새가 살아. 그중 내가 몇 마리를 죽였다 치자. 형은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

“박제하는 놈을 못 대겠어?”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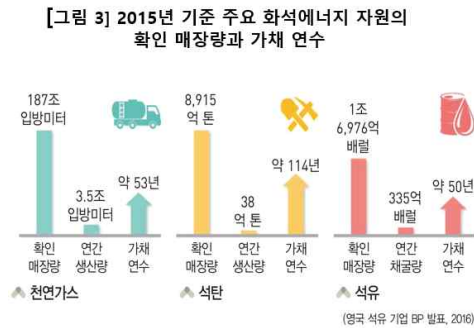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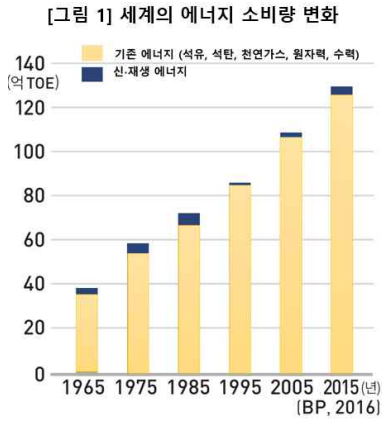
저녁에 병식이 귀가하면 박제 집을 알아내는 일이 더 쉬울 것 같았다. 병국은 경찰을 앞세워 박제사 집을 덮치거나 고발할 의향은 없었다. 박제품이 보호조가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인지 어떤지도 모호했다. 동진강 하구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채취하는 일과 새를 잡는 일이 무엇이 다르냐고 따질 때 반론을 제시할 근거가 없기도 했다. 나무 한 그루를 베어도 처벌받는 산림법 벌칙이 조류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수렵 금지 기간이 따로 있지만, 총포류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그 벌칙에서도 빠져나갔다. 짐승이나 조류의 박제품은 연구용 내지 관상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자연 보호 명목을 원용한다면, 야생 조류의 남획이 경범죄 정도에는 해당될 것 같았다. 병국이 박제사를 만나면 그를 설득해 조류 중에 나그네새나 철새의 박제만은 하지 말라고 말할 작정이었다. 박제사가, 남의 생업까지 왜 막느냐고 번서면 야생동물 보호 협회 경남 지부와 협의해서 강구책을 세우기로 했다.

⑤

지의류는 잘 알려진 공생 생물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끼처럼 보이는 지의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와 파래나 청각 같은 조류가 한데 어우러진 생물체다. 보통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 뒤, 이를 독식하지 않고 균류에게도 나눠 주어 균류의 생존을 돕는다. 한편, 조류로부터 포도당을 넘겨받은 균류는 공기 중의 수증기를 흡수하여 조류에게 공급해 조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류의 포자 방출을 돕기도 한다. 지의류의 공생 관계는 너무도 밀접하여 이 둘을 분리하면 단독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서 진화한 새로운 생물 종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문제 1】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⑥



【문제 2】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군주는 참소를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군주는 적절하게 신중하고 자애롭게 행동해야 하며,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의심이 많아 주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 견해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기는 어려우므로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여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는 사람들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당신에게 막상 그럴 필요가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

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소유될 수 없으며, 정작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에 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 관계를 팽개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써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3. 출제 의도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문학>, <사회문화>, <한국 지리>, <세계사>, <국어>, <독서> 등 교과가 다루는 ‘국가의 역할’, ‘공동체와 공감’, ‘개혁 정신’, ‘공생 및 공진화’ 등을 바탕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문학>, <사회문화>, <한국 지리>, <세계사>, <국어>, <독서> 등 교과가 다루는 ‘국가의 역할’, ‘공동체와 공감’, ‘개혁 정신’, ‘공생 및 공진화’ 등을 바탕으로 ‘화자’의 관점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도덕	관련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2) 사회사상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①
	2. 교과명: 국어	관련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5) 문학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제시문②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5) 문학 [10국어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여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④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3) 독서의 분야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⑤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3) 독서의 분야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⑦

3. 교과명: 사회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4)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12세사04-03] 신흥로 개척이 가져온 유럽의 흥기와 절대 왕정의 등장에 대해 탐구하여 유럽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한다.	제시문③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2)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삶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제시문⑥-그림1

과목명: 한국지리		관련
성취 기준	(3)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12한지03-03] 자연재해 및 기후 변화의 현상과 원인, 결과를 조사하고,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지속가능한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제시문⑥-그림2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5) 현대의 사회변동 [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시문⑥-그림3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2)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삶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제시문⑥-그림4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9	173	제시문①	x
문학	조정래 외 26인	해냄에듀	2019	297	제시문②	x
세계사	최준채 외 5인	미래엔	2018	126, 130	제시문③	x
국어	고형진 외 7인	동아	2018	239-240	제시문④	x
독서	방민호 외 5인	미래엔	2019	180	제시문⑤	x
통합사회	정창우 외 12인	미래엔	2018	267	제시문⑥-그림1	x
한국지리	박철웅 외 7인	미래엔	2018	83	제시문⑥-그림2	x
사회문화	서범석 외 5인	지학사	2018	199	제시문⑥-그림3	x
통합사회	이진석 외 12인	지학사	2018	281	제시문⑥-그림4	x
독서	이삼형 외 5인	지학사	2019	99	제시문⑦	x

5. 문항 해설

- 문항 1의 ⑥은 세계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자원의 편중과 무분별한 소비에 따른 자원의 고갈, 자원의 희소성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 등을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함.
- 문항 2의 ⑦은 ‘사랑’과 ‘두려움’ 중, 두려움을 중심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각각 제시문의 관점에서 옹호 또는 비판을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함.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1	제시문 ① ③ ④를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⑥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③ ④ 외의 제시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② ⑤를 선택한 답안 참조)
2	1. ‘옹호’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①, ③, ④를 골라 ⑦을 옹호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2. ‘비판’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②, ③, ⑤를 골라 ⑦을 비판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하위 문항 예시 답안

1

⑥은 자원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자원 고갈과 대체 에너지 부재, 편중된 자원의 확보와 이동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의 문제를 보여준다. 자원 배분의 문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③, ④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에서 ‘정’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경제 구조를 다시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자원 격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 2]는 산림자원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③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기존에 오스만 제국이 장악한 교역의 패권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도 항로를 개척했는가를 설명한다. 이들처럼 우리는 세계 에너지 고갈과 자원 편중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새로운 자원 이동 경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맺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④는 병국이 희귀조 멸종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병식과 박제사를 설득하고, 야생동물 보호협회와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묘사하고 있다.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의 작은 실천을 해야 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48자]

②의 모진소리는 나의 행동이 타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성찰을 보여주며, 이는 개인의 무분별한 자원의 유용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울림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타자와의 공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작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⑤의 공생진화론은 생명체가 경쟁보다는 상부상조를 통한 공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는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자원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공생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 ‘옹호’의 경우

⑦의 화자는 군주가 사람들에게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통치에 효율적이며, 이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본래 변덕스럽고 악한 존재로 이익에 따라 행동하며 감사의 상호관계를 쉽게 저버리지만 처벌에의 공포는 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형벌과 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①의 정(政)과 유사하다.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벌과 상을 내리는 군주의 권위와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옹호의 근거는 ③의 사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 ③의 유럽인과 원주민은 ⑦의 군주와 백성의 관계와 유사하다. 코르테스와 피사로는 화포로 무장하여 각각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기에, 이는 그들이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소수의 병력만으로도 원주민을 통치하여 금과 은을 수탈하고 사탕수수와 담배 플랜테이션 농장도 건설할 수 있었다. ④의 병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옹호의 근

거를 찾을 수 있다. 병국은 야생조류 박제를 막기 위해 동생 병식과 박제사를 설득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대함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익 추구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 병국이 동생을 타이를 때 병식이 오히려 “개떡 같은 이론 집어치워”라며 대드는 것은 ⑦에서의 주장처럼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통한 두려움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734자]

• ‘비판’의 경우

⑦의 화자는 군주가 사람들에게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통치에 효율적이며, 이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본래 변덕스럽고 악한 존재로 이익에 따라 행동하며 감사의 상호관계를 쉽게 저버리지만 처벌에의 공포는 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유대 등 시민적 덕성을 갖추고, 자유롭게 스스로를 통치하는 존재이다. ②의 시적 화자의 말처럼 타인에 대한 모진 소리는 나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므로,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출 때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해서는 처벌과 공포 대신 타자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⑦의 주장은 피지배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③에서 유럽인들은 화포를 동원해 원주민들의 두려움을 유발하여 그들의 재화를 수탈하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였다. 유럽인들이 공포감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을 지배하고 착취한 행위는 전형적인 식민 통치로서 인종 차별과 인권 말살에 해당한다. 이를 ⑦의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 대입해본다면, 공포와 규제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상호 감사와 부조가 공동체의 번영과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다. ⑤에 따르면 균류와 조류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공생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를 통해 두려움을 우선시하는 방식은 사랑을 중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739자]